[2026년 1분기] 인포스탁데일리 독자위원회 정기 평가 보고서

일시: 2026년 3월 31일 10:00~11:30

대상: 인포스탁데일리 보도 기사 및 웹사이트 콘텐츠 (2026년 1월 ~ 3월)

평가위원:

강명국 위원 (승산파트너스 대표/ 금융정책 및 거시경제 전문가)

송태우 위원 (전 교원공제회, 다올자산운용 주식 운용본부장 / 자본시장 전문가)

안호현 간사 (인포스탁데일리 대표)

1. 종합 총평:

2026년 1분기 인포스탁데일리는 단순한 뉴스 전달자가 아닌, 자본시장의 복잡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투자자들에게 깊이 있는 통찰력을 제공했습니다.

이번 분기에는 특히 사회적 파장이 컸던 통신 보안 이슈와 시장의 판도를 바꾸는 정책 변화를 정면으로 다루며 언론 본연의 감시 기능을 수행했습니다.

2. 위원별 심층 평가 및 섹션 분석

강명국 위원 [자본시장 및 정책 섹션]

정책 비판의 입체성: 한국거래소의 거래시간 연장 논의를 다룸에 있어, 정부의 추진 명분뿐만 아니라 증권사 노동조합의 근로 환경 악화 우려, 개인 투자자의 유동성 집중 효과 등 상충하는 이해관계를 밀착 취재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찬반 논쟁을 넘어 정책의 실효성을 다시금 생각하게 만드는 계기를 제공했습니다.

보완 제언: 정책 이슈가 장기화될 경우, 과거 유사 사례(예: 2016년 거래시간 30분 연장 당시 효과)와의 비교 데이터를 차트로 시각화하여 제시한다면 독자의 이해도가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강명국 위원 [산업 및 KOSDAQ 기업 분석 섹션]

통신사 해킹 사태와 실적 상관관계 : 최근 발생한 대형 통신사의 해킹 사태를 보도하면서, 단순 사고 발생 사실보다 보안 투자 예산의 삭감이나 경영진의 책임 회피 등 구조적인 문제를 파헤친 점에 높은 점수를 드립니다. 이는 산업 보안 전문가로서 미디어가 보여주어야 할 최

고의 '워치독' 사례라고 판단됩니다.

KOSDAQ 심층 분석의 전문성: 소외된 코스닥 기업들에 대한 탐방 기사와 깊이 있는 분석은 훌륭했습니다. 특히 재무제표에 나타나지 않는 기술력과 경영진의 비전을 취재하여 '특정 기업의 리스크와 기회'를 명확히 짚어낸 부분은 투자자들에게 큰 나침반이 되었습니다.

보안 및 윤리 제언: 홈페이지 내 ESG 카테고리를 상설화하여, 기업들의 ESG 경영 중 'S(사회적 책임)'와 'G(지배구조)' 관점에서의 보안 관리 체계를 상시 모니터링하는 코너를 제안합니다.

송태우 위원 [글로벌 마켓 및 투자 전략 섹션]

미국 기업 실적 발표 시 매출 수치보다 중요한 것이 컨퍼런스 콜의 Q&A 세션입니다. 인포스탁데일리는 글로벌 애널리스트들의 날카로운 질문과 경영진의 답변 뉘앙스를 상세히 분석하여 전달했습니다. 이는 서학개미들이 '진짜 정보'를 얻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보완 제언: 글로벌 기업들의 ESG 공시가 의무화되는 추세에 맞춰, 글로벌 데스크 차원에서 해외 기업의 지배구조 리스크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기사를 강화해주길 바랍니다.

4. 향후 과제

미국 주식 어닝콜 분석 시, 주요 질문의 키워드를 '워드 클라우드'로 제시하거나 실적 추이를 동적 그래프로 표현하여 직관성을 높여야 합니다.

독자 위원회뿐만 아니라 실제 투자자들이 특정 보도에 대해 피드백을 주고 질문할 수 있는 '독자 Q&A' 기능을 홈페이지에 도입하여 양방향 소통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종 결론: 인포스탁데일리는 2026년 1분기 동안 '깊이 있는 분석(Depth)'을 토대으로 자본시장 전문 미디어로서의 소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업의 치부를 드러내는 데 주저하지 않는 용기와 해외 시장의 세밀한 부분까지 놓치지 않는 꼼꼼함은 독자들에게 큰 신뢰를 주었습니다. 향후 데이터 시각화 보완을 통해 더욱 완벽한 경제 미디어로 거듭나길 기대합니다.